

# 흔들리는 직장법회



- ① 직장법회 현주소
- ② 침체요인 진단
- ③ 활성화 방안

확보, 재정의 어려움, 종교단체로서 직장 내 운신의 어려움, 회원의 잦은 전출·퇴직, 회원의 소극성 등이 지적된다.

직장법회 최고의 걸림돌은 법사 부재, 법회 때마다 법사초청 문제로 많은시간을 회장이 할애하고 그나마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상임법사를 모시기 어렵다.

스님들의 무관심과 종단의 정책지원도 미미하다. 종단에서 직장법회를 관리하는

에 불과한 불자회들은 임원들의 부담이 크다.

한일은행불교신학회 한우진회장은 "타종교에 비해 어려움이 크다"며 "불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사지원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종교단체이다보니 참람에 애를 겪고 운영에도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경남 현대정공(주)의 경우 초파일 등

## 종단 무관심 '구멍'... 친목위주 운영 한계 개신교 2천여모임 전담사목 배치와 대조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것은 물론 직장불교회 임원들을 위한 교육등 관심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96년 조계종총회 포교분과위가 현황자료를 펴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크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불자회는 회운영비 충당과 장소대여비, 법사초청비지출등 뼈대하다.

회원이 많은 경우는 부담이 적으나 보통 30~40명 수준에 열성회원이 15명 안팎

(회)을 회사건물에 거는 문제로 기독교신우회와 충돌하여 회사에서 두 단체를 비공식적으로 인가해 지원비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불자들의 심심결여와 친목모임 형식이 강하다는 것도 꼽힌다. 친목 위주 운영은 법회가 형식화되면서 불자회도 열의가 있던 처음과는 달리 지속적이지 못한 실태를 보여 준다.

해진다. 이는



◇ 직장법회중 공무원불자회 창립이 늘고 있다. 사진은 4월10일 창립된 김천시청 법회회.

또 직장법회 특유의 열성회원 전출 그리고 퇴직으로 인한 지속성 결여도 한 요인이다. 불자회는 운영이 활성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으로 열성회원이 활동을 못할때 직장법회도 활동이 중단돼 버리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는

요하다. 서울 한 구청의 공무원불자는 "사회속에서 정적으로 포교를 극대화 하기 위해 복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직장법회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역대정권 이래 자행된 종교관향의 근본요인은 교계의 직장법회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다는 여론이다. 행정부에 불자회가 구성된 곳은 한곳도 없다.

### 전국 직장·직능법회

지역(직장)	단체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한국대불자교수회	허헌택	02)260-3155
	한국대보현회		02)260-3471
	한국대관음회		02)260-3476
	동일종교연합회		02)260-3471
	동일종교연합회		02)397-6170
	동일종교연합회		02)240-2801
	외국인종교연합회		02)729-8695
	조선종교연합회		02)273-8340
	한국대보현회	김승무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부산	한국대보현회	김승무	02)273-834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대구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대전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경기도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충청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 지역(직장) 단체명 회장 전화번호

경북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충청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 지역(직장) 단체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부산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 지역(직장) 단체명 회장 전화번호

서울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부산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59-593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74-8842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05-6114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31-610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3701-1081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920-3435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260-1413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851-9050
	한국대보현회	홍순우	02)784-1021

### 우리 모임에선

**교불련 '늘 좋은 길' 창간**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만숙)는 10일 회보 '늘 좋은 길' 창간호를 펴냈다. 창간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포교인원 성타스님의 격려사, 임만숙회장의 창간사, 교사불자연합회 목적과 사업개시, 지부활동 상황등을 담았다. 회보는 A4크기 8면으로 연4회 3천부씩 발행한다. 교사불자연합회는 또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집 '좋은 친구' 창간호도 8월 1일자 펴낼 계획이다. (02)720-7065

**보현가족 신병교육대 위문**  
고양시 보현가족(지도법사 한연수)은 28일 제9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법당에서 일요위문법회를 개최한다. 보현가족은 지역동거노인등과 군부대법당 위문법회활동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034)64-9006

**불가침구학회 침술강좌**  
불가침구학회(회장 이홍재)는 침술을 배워 사회에 자비봉사할 불자를 배출키 위해 전통침술강좌를 마련했다. 1년과정의 강좌는 '음양오행의 원리' '경혈학' '임상실기' '진단법' '해부학' '전통경락지침' 등의 과목이 강의되며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으로 회비는 15만원이다. 1982년 창립한 불가침구학회 회원들은 '자비의 손' 법당을 열어 하루 5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매일 무료시술을 펼치고 있다. (02)725-2999, 722-3800

#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자해 주십시오!

전국의 불자 여러분!  
불자기업에 만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일년 후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대동소방은 1994년 창시 이래 소방기자재 제조 및 판매분야에서 매년 10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오고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세계최일류의 소방제품 메이커를 목표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교계의 보기 드문 불자 기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IMF사태 이후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저회들의 주거례신인 설비업체들의 연쇄부도가 거둬되어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 당사가 입은 피해액이 막대하여 달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회들은 전직원이 "일체 유심조"의 사훈과 불심으로 화합하여 거둬지는 여러번의 위기를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지고 그간 당한 부도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간 부도금액의 4할 가량을 자체자금으로 변제하여 왔으나 현재는 담보여부부족으로 은행권으로부터의 신규대출도 더 이상 불가능하고 미수금들의 수금도 난감하여 3/4분기 변제해야 할 3억원에 상당하는 부도금액 변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회는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불자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년후 사들금리에 맞춰 만이천원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자 여러분이 만원씩만 투자해 주신다면 이번 일시적인 부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불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회 회사는 작년 매출액이 40억이었으며 올 상반기 매출액도 IMF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미20억을 초과하여 작년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소방제품 수출도 시작하여 현재 \$200,000 가량의 L/C가 내도 예정이며 또한 약\$300,000의 추가 상담이 진행중 입니다. 그리고 이미 소액이나마 \$30,000의 수출에 성공한 상태로서 이 일시적 위기가 넘기면 저회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밝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따뜻한 마음으로 저회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회들은 천군만마의 원군을 얻은 심정으로 더욱 발심 노력하여 건설하고 튼튼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직원이 불자로 구성된 저회들은 저회들이 거둔 열매를 불교 발전과 불법홍포의 밑거름으로 화향할 것을 불자들에게 다짐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은 부도 잔액변제 및 제조생산기반 확충과 수출제품 개발을 위해 쓰여질 것이며 그 사용 또한 투명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여하실 방법**

- ① 하기 당사구좌로 만원을 입금하여 주시고 그 입금증 사본을 팩스 혹은 우편으로 연락처,성함을 명기하여 제시하거나
- ② 전화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입금확인후 차용증 혹은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투자금액유 5만원
- 투자한도인당 1만원이상 1백만원 이하
- 투자 모집기간 불기 2542년 7월 20일부터

참고로 저회회사에 대해서는 불교신문 5월 28일자, 주간불교신문 5월28일자, 현대불교 5월27일자 및 매일경제신문 7월1일자 25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佛子企業을 키워 주십시오. 成佛하십시오.**

대표이사 趙限 이남재 외 임직원일동 습주

**대표전화:02-215-0723**  
**FAX:02-246-8503**

**예금계좌**

서울은행:28701-3065308  
 중소기업은행:015-026140-04-011  
 상업은행:178-04-105683  
 한일은행:097-147931-13-501  
 제일은행:154-20-040173  
 국민은행:355-25-0003-678  
 신한은행:313-05-014055  
 축협:200-72-07640-717

**예금주**  
(주)대동소방

**주식회사대동소방**  
DAE DONG FIRE FIGHTING CO., LTD

본사 대표전화:(02)215-0723 FAX (02)246-8503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714  
 지사 대표전화:(051)772-0729 FAX (051)772-3923  
 경북 경주시 옥강동 304-3  
 공경 경북 포항시 북구 경하면 사정리 679